동우

발행인 김재호 | **편집위원** 김호경(편집국) 김윤진(미래전략연구소) 임희조(AD본부)
김석호(마케팅본부) 김승현(문화사업본부) 강흠민(경영지원국) 김경일(재경국)
송수하(콘텐츠전략본부) 신호영(스튜디오D) 조현선(보도본부) 이민종(비즈니스기획본부)
황구현(경영지원본부) 김도윤(동아E&D) 김미리(채널A비앤씨) (편제순)
제작 경영총괄팀(구내 0539)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vol. 313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 2면 룩스에 내 최애를 띄운다 팬덤 플랫폼 '키윙' 출시 | 3면 채널A 프라임 시간대 개편 하이엔드 뉴스쇼, '1일 1예능' 본격 가동 | 4면 사원증 놓고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깊이와 신뢰로 다져진 뉴스로 책임 있는 시선 제시해야"

동아미디어그룹 2026년 시무식 개최… 임원진, 계열사 대표, 신입사원 등 52명 참석

"권력, 제도, 기술을 악용해 진실을 봉쇄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언제나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원칙으로 대답합시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1월 2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2026년 동아미디어그룹 시무식에서 "우리는 사실을 향한 집요함과 겸손함, 사안을 바라보는 균형감,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긴 호흡의 시선을 통해 동아만의 깊이를 더해야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1월 2일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새로운 3대 경영방침을 공유하며, 새해 더 큰 도약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회성

>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로 우리의 업을 정의해야

"DAMG만의 '원스톱 뉴스 루프' 갖춰야"

김 회장은 지난해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고마움을 언급하며 2026년 신년사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뉴스룸 조직은 날카로운 보도와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며 "콘텐츠 제작조직은 지난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동아미디어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긴 3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뉴스가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거짓이 속내인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한 김 회장은 "동아미디어그룹의 핵심 기초 자산은 '깊이와 신뢰로 다져진 뉴스'"라며 첫 번째 경영방침을 강조했다. 이어 "표피적인 정보, 왜곡된 해석, 성급한 결론이 늘어날수록 '불편부당 시시비비'라는 동아 정신을 떠올리며 신뢰할 수 있는 사실과 책임 있는 시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아미디어그룹이 지면, 방송, 디지털에 더해 국내 최대 미디어 사이니지를 갖췄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아미디어그룹만의 '원스톱 뉴스 루프'를 갖추고 각각의 포맷에 맞는 다양한 뉴스를 통해 경험의 경계를 넓혀 나가자"고 당부했다.

두 번째 경영방침은 '콘텐츠 팬덤 기반 비즈니스 다각화'다. 김 회장은 "'콘텐츠를 만들어 전달한다'가 아니라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로 우리의 업을 정의해야 한다"며 "콘텐츠라는 매력 자산을 바탕으로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되어 사회관계망과 유대감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했다.

또 "각 조직이 '팬덤'으로 대표되는 열성 고객층을 넓혀 나가고 그들이 핵심 소비자로서 우리를 지지할 때 동아미디어그룹의 콘텐츠와 서비스는 한층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경영방침으로는 '경계를 초월한 가치 확장'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는 기술을 도구로 쓰던 것을 뛰어넘어 낯선 영역에 과감하게 발을 디디는 동력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2026년에는 경계를 넘어선 도전이 일상이 되고, 그 도전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룩스 구축, 다양한 계열사 참여로 이뤄내 큰 자부심"

김 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사이니지인 '룩스(LUUX)'의 성공적인 탄생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도 룩스의 기획, 시공, 영업, 운영, 송출 등 전 과정을 동아일보와 채널A는 물론 동아닷컴, 채널A 뉴스비전, 채널A 미디어텍, 채널A B&C 등 다양한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들의 참여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올해 시무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국실본부장, 계열사 대표, 신입사원 등 52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동아미디어그룹의 지난해 성과와 신입 구성원들의 새해 다짐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동아일보 사가를 제창했다. 시무식이 끝난 뒤 김 회장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신년인사를 전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최수연

2026년 _ 동아미디어그룹 3대 경영방침

2026 DAMG POINT → 깊이와 신뢰로 다져진 뉴스 | 콘텐츠 팬덤 기반 비즈니스 다각화 | 경계를 초월한 가치 확장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이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동아미디어그룹의 3대 경영방침을 밝혔다. 올해 동아미디어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3대 경영방침의 의미를 짚어본다.

깊이와 신뢰로 다져진 뉴스

올해 첫 번째 경영방침은 사실에 입각해 깊이 있게 비춰보며 검증된 신뢰로 다져진 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동아만의 깊이를 더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의 핵심이며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정보의 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권력과 제도, 기술을 악용해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기준은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원칙이다.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책임 있는 해석을 더한 뉴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콘텐츠 팬덤 기반 비즈니스 다각화

독자와 시청자를 우리의 콘텐츠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덤'으로 바꿔나갈 때 그들이 우리의 핵심 소비자가 된다. 콘텐츠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형성된 팬덤은 굿즈, 어워드, 이벤트, IP 확장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비즈니스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팬덤 비즈니스는 경쟁이 치열한 영역인 만큼, 실행 계획을 갖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기획과 구조에 대한 고민, 완성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요한 실행이 뒷받침될 때 그 결과는 견고한 수익 구조로 이어진다.

경계를 초월한 가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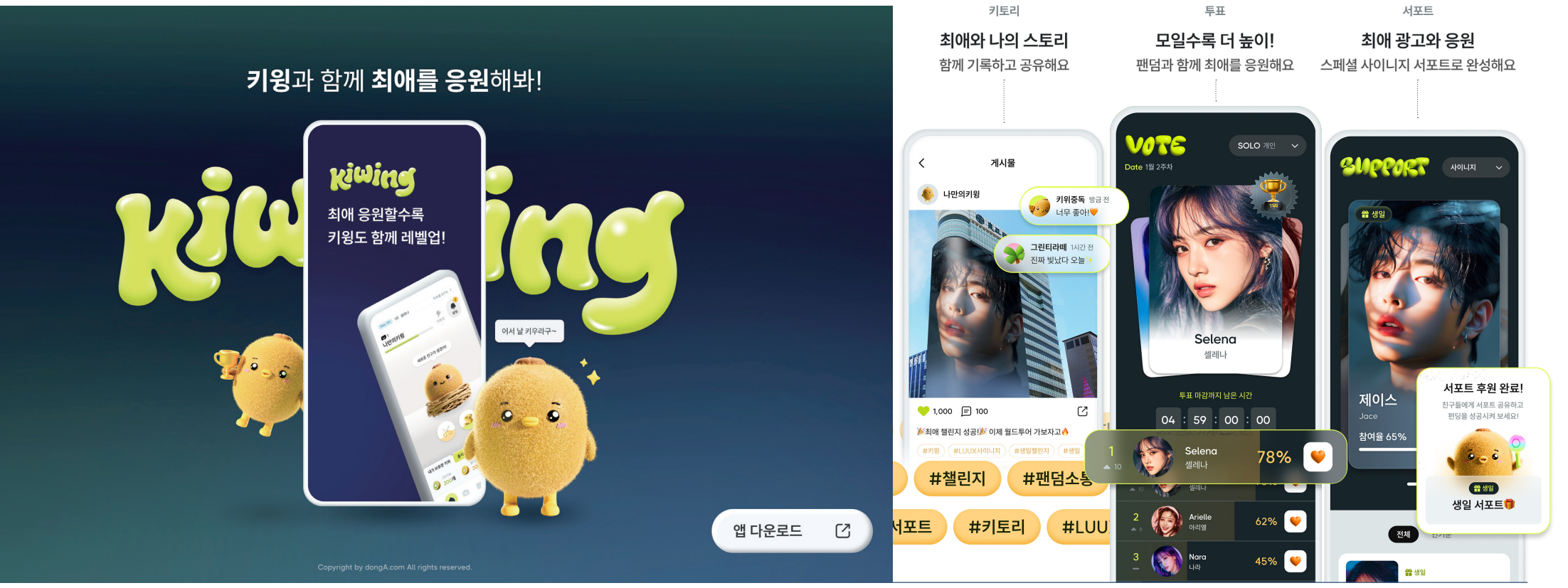
기술이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허무는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세 번째 경영방침이 마련됐다. 기존의 관행과 역할 구분에 머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개인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 할 때마다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여러 단계의 회의를 거쳐야만 한다면 그 시도는 조직 내에 머물게 된다.

이제는 개인이 AI 등 새로운 도구를 적극 활용해 기술을 내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전통적 경계를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개인의 전문성에 다양한 기술을 결합해 역할의 한계를 두지 않아야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김소영

동우

2026. 1. 21 수



룩스에 내 최애를 띄운다… 팬덤 플랫폼 ‘키윙’ 출시

출시 2주 만에 투표수 250만 표 돌파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와 팬덤 문화를 결합한 참여형 플랫폼 ‘키윙(Kiwing)’이 2025년 12월 29일 정식 출시됐다.

키윙은 팬들이 직접 투표와 펀딩에 참여해 아티스트를 응원하고, 그 결과가 도심 공간에 구현되는 구조를 갖춘 팬덤 기반 플랫폼이다. 키윙은 2주 만에 가입자 2000명, 투표수 250만 표를 돌파하는 등 출시 초기부터 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팬들 직접 펀딩 프로젝트 개설

키윙의 핵심 기능은 ‘팬 주도형 펀딩’과 ‘경쟁’이다. 팬들은 투표 탭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에게 ‘그린키위(무료 재화·1표)’와 ‘골드키위(유료 재화·20표)’를 사용해 투표하며 순위를 경쟁한다.

매월 상위권에 오른 아티스트에게는 ‘룩스에 내 최애를 띄우는 경험’이 주요 리워드로 제공된다. 한 달에 한 번, 팬들의 선택으로 아티스트의 콘텐츠가 광화문 일대 대형 미디어 사이니지에 송출되는 구조다.

출시일부터 1월 11일까지 2주간 개인과 그룹 부문 등 총 투표수는 250만 표를 넘어섰다. 개인 부문 1위는 라이즈(RIIZE) 원빈으로 61만3236표를 받았다. 2위와 3위는 58만779표의 NCT DREAM(엔시티 드림) 재민과 6만9200표의 NCT DREAM(엔시티 드림) 제노가 차지했다. 그룹 부문 1위도 라이즈(RIIZE)로 45만5356표를 획득했다. 2위는 17만3780표의 NCT WISH(엔시티 위시), 3위는 2만2360표의 엔싸인(n.SSign)이었다. 첫 번째 부문별 최종 아티스트 순위는 1월 25일 정해질 예정이다.

또 팬들은 직접 펀딩 프로젝트를 개설해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펀딩이 성사되면 아티스트 영상 송출, 현장 이벤트, 관람 기회, 추첨형 혜택 등 다양한 프리미엄 리워드가 제공된다. 이러한 경쟁과 펀딩 구조는 룩스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의 일상을 도심 공간으로 확장

이번 키윙 기획은 기존의 팬덤 시장에 존재해 온 수요를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지하철이나 도심 빌딩 전광판에 아티스트의 생일이나 컴백을 축하하는 팬 광고가 오랜 시간 팬덤 문화로 이어져 온 것에 착안한 것. 팬들의 일상적인 응원 경험을 도심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키윙은 동아미디어그룹 내 여러 조직이 함께 참여해 완성됐다. 프론트엔드 개발은 시넥스트팀 임상아 ND가 전담했으며, 동아닷컴 디자인팀은 UI·UX, 이노테크팀이 백엔드 개발을 담당했다. 경영전략실 크라우드온팀은 시넥스트팀과 함께 서비스 정책과 기획을 공동으로 설계했다.

키윙은 기존 팬덤 앱과 차별화를 위해 ‘키윙 캐릭터’ 시스템도 도입했다. 팬의 활동에 따라 성장하는 ‘키위새’ 캐릭터는 키윙만의 프리미엄 요소로 참여의 재미를 더했다. 키윙 캐릭터 시스템은 채널A B&C와 협업해 기획·디자인됐다.

시넥스트팀은 공식 인스타그램과 X(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활동을 강화해 팬 참여를 넓혀 나가고 있다. 또한 강력한 리워드 구조를 바탕으로 팬덤을 결속시키고, 정책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 박정서

“내 얼굴이 룩스에”… 시민과 함께한 ‘Live! Photo with LUUX’

룩스에 카운트다운 등 다채로운 신년 콘텐츠 선보여

지난해 12월 31일 밤 룩스를 통해 시민들의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주는 ‘Live! Photo with LUUX’ 행사 모습. 사진=편집국 사진부 이한결

2026년 새해를 다섯 시간 남짓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6시 15분. 국내 최대 규모 미디어 사이니지인 룩스(LUUX)에 빨간색 라이브 표시등이 켜졌다. 광화문을 찾은 시민들의 설렘 가득한 얼굴이 ‘2026 제일 잘 될 사람’이라는 문구와 함께 3000m²에 이르는 초대형 사이니지로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신년 행사 중 유일한 라이브 이벤트

환하게 불을 켠 룩스를 청계광장 인근에서 바라보던 시민들은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등장하자 탄성을 터트렸다. ‘Live! Photo with LUUX’ 행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 이후까지 각 시간대별로 15분 전후에 5분 동안, 7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자정을 전후해 광화문에서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 룩스를 포함해 광화문 권역의 미디어 사이니지 9개를 하나의 스크린처럼 활용해 오후 11시 58분부터 0시 5분까지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사전에 제작한 서울시민의 새해 소망 인터뷰와 ‘말의 해’ 상징 미디어 아트 작품이 동시에 송출됐다.

룩스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중 유일하게 라이브 이벤트를 펼쳤다. 생중계가 자유로운 시민 참여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실제로 라이브가 펼쳐질 때마다 룩스 앞에서는 광화문을 찾은 가족들의 반가운 손짓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룩스 라이브를 스포츠 경기장 전광판의 ‘키스 타임’처럼 활용하는 연인이 눈에 띄기도 했다.

자녀들과 함께 이벤트를 즐긴 김효정 씨(43·여)는 “유난히 추운 날씨였지만 ‘엄청 큰 화면에 내 얼굴이 나왔다’며 신나하는 두 아들의 모습이 뜻깊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룩스 라이브 성공을 이끈 DAMG 협업

이날 라이브 이벤트는 라이브 프레임 제작 등을 이끈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 중계차·카메라 운영을 총괄한 채널A 미디어텍, ‘사이니지 통합 운영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실제로 진행한 동아닷컴 테크본부 등이 한 몸처럼 협력했다.

카운트다운 행사가 끝나고 오전 1시까지 자유롭게 공공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었던 55분 동안 룩스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였다. 기존의 ‘거인이 산다’와 같은 콘텐츠와 더불어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과 시넥스트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푸른 크리스마스 영상, 붉은 말 영상 등이 룩스를 밝힌 것이다.

또 채널A 보도본부와 콘텐츠전략본부, 스튜디오D, 스튜디오E가 힘을 모아 제작한 2편의 ‘시즌 그리팅’ 영상도 자정부터 지난 4일까지 룩스를 통해 시민들을 만났다. 2편의 영상에는 〈야구여왕〉 등 채널A 간판 프로그램 출연진과 〈뉴스A〉 등 주요 보도 프로그램 진행자의 활기찬 새해 인사가 담겼다.

AD본부 룩스기획팀 김도형

① 새로운 뉴스쇼 '뉴스A CITY LIVE'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9시에 방송된다. ② 채널A 신규 예능 '셰프와 사냥꾼' 제작발표회가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③ 최진혁, 오연서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아기가 생겼어요' 포스터

채널A 프라임 시간대 개편… 하이엔드 뉴스쇼, '1일 1예능' 본격 가동

'뉴스A CITY LIVE' 첫방송… 예능 신작과 새 시즌 연이어 방송 시작

2026년 새해를 맞아 채널A의 새로운 시사와 예능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평일 밤 9시, 10시에 시사보도 및 예능 프로그램을 고정 편성하며 평일 황금시간대 공략에 나선 것이다.

베테랑 기자들이 풀어내는 뉴스

'지루하고 답답한 뉴스는 가라!'

새로운 시사보도 프로그램 〈뉴스A CITY LIVE〉(이하 시티 라이브)가 5일 밤 9시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광화문 오픈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뉴스쇼 시티 라이브는 뉴스의 틀을 완전히 깬 포맷으로 첫 방송부터 시청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13년 경력의 채널A 대표 앵커 김종석의 오프닝은 '시티 라이브'의 시그니처다. 송곳같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하는 뉴스를 전한다. 이어지는 토크에선 보도본부 차장·부장 등 데스크들이 출연해 뉴스를 풀어내는 '뉴스 콜라보' 형식으로 시청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정치 이슈부터 사회, 경제, 국제 정세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어 채굴해 온 뉴스들과 〈뉴스A〉에서는 전하지 못한 취재 뒷얘기를 담는다.

생생한 사건사고 영상을 속도감 있게 전하는 '사건 브리핑', 지구본 속으로 앵커가 들어가 전 세계 화제의 현장을 전하는 '외신 브리핑'도 새로운 시도다. 김종석 앵커는 "채널A 기자들의 깊이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하이엔드 뉴스'를 제공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오후 5시대를 책임져 온 채널A 대표 시사보도 프로그램 〈뉴스 TOP10〉은 '취재하는 앵커' 노은지가 새롭게 합류했다. 노 앵커는 정치와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현장감 있고 깊이 있는 뉴스를 전달한다.

평일 밤 10시대 예능 존으로 통합

평일 밤 10시대는 하나의 예능 존으로 통합됐다. 요일별 대표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고 고정된 시청 패턴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월·수·금은 레귤러 예능, 화·목은 시즌제 예능 존으로 운영하며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2025년 견종별 맞춤 솔루션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새로운 반려견 프로그램의 장을 연 〈개와 늑대의 시간〉은 새해 시작과 함께 시즌2로 돌아왔다. 7일 첫 방송 이후, 각종 SNS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강형욱 파이팅" 등 시즌2를 기다려온 시청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스튜디오E 1CP 한지인 PD는 "시즌2에서는 문제 행동 자체에 집중해, 다양한 견종과 보호자의 사례를 하나의 기수로 묶는 방식으로 포맷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8일 첫 방송된 〈셰프와 사냥꾼〉은 예측하기 어려운 야생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연출은 사냥 현장의 긴박함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연출을 맡은 스튜디오D 2CP 구장현PD는 "사냥과 요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출연자들의 선택과 반응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가 선보이는 2026년 첫 드라마 〈아기가 생겼어요〉는 13일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주연 배우 최진혁, 오연서, 홍종현, 김다솜이 참석한 특별 시사회 이벤트를 통해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7일 토요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토·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채널A 2026년 채널A 평일 프라임타임 개편

	월	화	수	목	금
밤 9시	뉴스A 시티 라이브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밤 10시	탐정들의 영업비밀	야구여왕	개와 늑대의 시간2	셰프와 사냥꾼	

보도본부 편집1부 김유빈

콘텐츠전략본부 콘텐츠밸류업팀 송수하

'치매머니 사냥' 실태 첫 추적… 히어로콘텐츠 '헌트' 취재기

11기 히어로팀의 아이템을 찾는 과정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7월 말, 팀이 구성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10여 개 주제가 테이블에 오르내리길 반복했을 뿐 방향이 좁혀지지 않았다. 취재팀은 주제를 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사람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 것, ▲해결 가능한 문제를 다룰 것, ▲보도를 통해 적어도 한 가지는 바꿀 것 등이었다. 후견인 제도의 결함을 들여다보던 중 착안한 주제 '치매머니 사냥'은 이런 원칙에 들어맞는 주제였다.

치매머니 사냥 직접 실태조사

고령화로 치매 노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자산을 노리는 범죄에 대한 실태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치매머니 규모(154조 원)에만 반짝 관심이 쏠렸을 뿐이었다.

취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치매 환자는 자신의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억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 문제가 왜 지금까지 공론화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피해 규모를 보여줄 데이터도 없었다.

지난해 11월 19일 히어로콘텐츠 '헌트' 3회의 배경이 된 '우리요양원'에서 전혜진 기자(왼쪽)가 치매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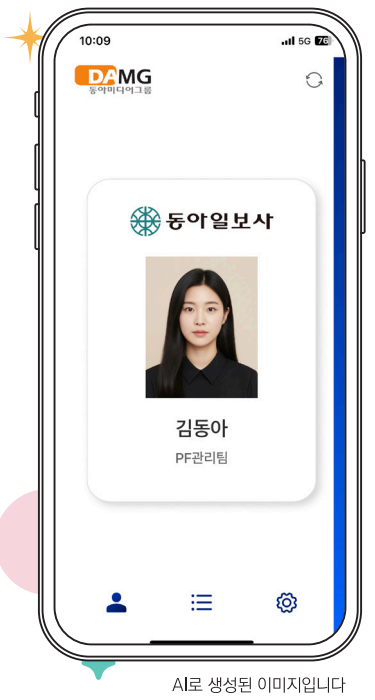
결국 취재팀이 찾은 해결책은 노인이 남긴 기록과 가족의 도움이었다. 치매 노인과 그 가족들을 수차례 설득했고, 36명이 어렵게 '사냥 당한' 기억을 꺼냈다. 그 중 8명은 관련 기록이 담긴 통장 내역을 모두 취재팀에게 보여줬다. 통장 속 이체 내역과 가족들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 받은 자료, 노인들의 희미한 기억을 종합해 그들이 약탈 당한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팀은 한국노년학회와 함께 그간 정부가 손을 놓은 실태 조사를 직접 하기로 했다. 학회는 연간 경제적 학대 피해율(0.4%)에 국내 치매 인구를 대입하고, 치매 환자가 일반 노인보다 금융 착취에 3.7배 더 취약하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해 피해 건수를 도출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약 6만7000여 명의 치매 노인이 금융 학대를 당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 숫자대로면 지금까지 법의 심판을 받은 가해자 수보다 피해자가 1000배 가량 많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냥을 막을 후견 제도가 비싸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치매 노인의 자산 관리와 법적 권리를 대신해 줄 후견인이 지정되면 '사냥'을 막을 수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극히 적은 수준이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사냥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번 보도가 이 고장난 제도들이 정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편집국 경제부 이상환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사원증 놓고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바일 사원증 도입…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옥 출입 가능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들은 1월 2일부터 모바일 사원증으로 사옥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제 실물 사원증 카드를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개인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옥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전용 앱 스마트폰에 설치해 인증 절차

모바일 사원증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전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모바일 사원증이 발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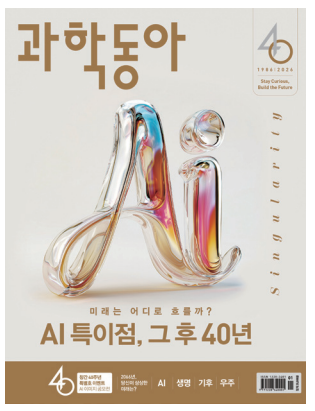
발급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출입 게이트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원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경우 앱 설치 및 본인 인증이 완료됐다면 별도 앱 실행 없이 화면을 켠 채 태그하는 것만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애플 IOS 사용자는 앱을 실행한 뒤 태그해야 한다. 모바일 사원증은 출입 게이트 외에 각 층 비상계단, 구내식당 등에서도 기존 실물 사원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사원증은 출입 관리의 정확성과 보안 수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업무 관리 효율 개선과 스마트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원증 분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물 카드 발급 및 재발급에 소요되던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사용 중 문의 또는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동아일보 PF관리팀(02-2020-0146) 또는 채널A 협력지원팀(02-2020-2952)로 연락하면 된다.

경영지원국 PF관리팀 김민규

과학동아 창간 40주년, 호기심으로 미래 연다



과학동아가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1986년 창간 이후 꾸준히 과학의 가치와 재미를 전해 온 과학동아는 창간 40주년 슬로건으로 'Stay Curious, Build the Future'를 내걸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의 질문과 호기심이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1월 창간 40주년 특별호(사진)에서는 인공지능(AI), 생명과학, 기후, 우주 개척 등 4개 분야에서 앞으로 40년 동안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짚었다. 올해는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호기심 연간패스'를 선보인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부터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이 연구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랩투어', 과학 페스티벌, 북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아사이언스 과학동아팀 이영혜

신간 소개

〈우리 동네 유행가들〉

채널A 심의실 이영훈 부장

가요 연구자로도 활동하는 채널A 심의실 이영훈 부장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대중가요 66곡의 이야기를 엮은 책을 펴냈다. '서울의 찬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목포의 눈물' 등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노래들과 그에 담긴 시대상을 소개한다.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함께 담아 지역과 대중가요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트럼피디아: 트럼프 알고리즘을 해부하다〉

동아일보 편집국 이지윤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이지윤 기자가 연재해 온 '트럼피디아'가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트럼피디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존 공식과 권력 공생 구조를 집요하게 추적한 일종의 '트럼프 시스템 해부도'다. 현직 국제부 기자의 현장감 있는 시선으로 트럼프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수상 소식

히어로콘텐츠팀 '누락' 관훈언론상 수상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구특교 김수현 이문수 주현우 위은지 기자)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시리즈가 12월 23일 2025년 관훈언론상 사회변화 부문을 수상했다. 관훈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아파트의 부실한 부분을 발품 팔아 취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도본부 좌영길, 이기상, 김지윤 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채널A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좌영길 이기상 김지윤 기자(사진 왼쪽부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연속 보도가 12월 23일 한국기자협회 제423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채널A는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내용 등을 단독 보도했다.

편집국 박성민 정책사회부 차장 올해의 의학기자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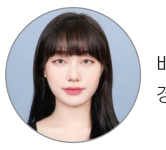
박성민 동아일보 편집국 정책사회부 차장(사진)이 12월 18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 2025년 '올해의 의학기자상'을 수상했다. 박 차장은 '노인 1000만 한국, 품위 있는 죽음을 묻다' 시리즈를 기획하며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파원 소식

신임 워싱턴 특파원 부임

보도본부 정다은 기자(사진)가 신임 미국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해 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동아일보 특파원을 겸하는 정 특파원은 최주현 특파원과 임무를 교대했다. 임기는 1년.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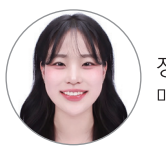


배다애 /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① 기획부터 제작까지, 끝까지 닿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LUUX라는 무한한 캔버스에, 의미가 쌓이는 크리에이티브를 실현하는 CD로 성장하겠습니다.
② 요즘 뜨개질에 다시 빠졌습니다. 한 코가 어긋나면 풀고 돌아가야 하듯, 결과보다 과정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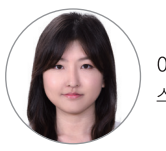
박가영 /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① 안녕하세요, 시넥스트팀 CD로 입사하게 된 박가영입니다. 3개월의 인턴을 거쳐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움을 실현해 온 열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②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입사 전 혼자 제주도에 와 온전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의 우연한 순간들과 따뜻한 온기, 그 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을 좋아합니다. 이 기억의 파편은 저에게 한 해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유진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① 최근에 라섹을 했습니다. 4k의 세상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동아에서도 선명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② 두쫀쿠.(참고로 겉은 얇고 속은 촉촉한 겉얇속촉 선호합니다.)



이유정 / 채널A
스튜디오E

① 제가 기존 관리해 온 광고주 네트워크와 신규 광고주를 발굴해 채널A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역도 넓혀 채널A 성장에 추진력을 더해 빛나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② 쉬는 날에 보다 건강하게 보내고 싶어 운동, 면역력, 야외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헬스장에서 운동 하고 주말에는 근교로 산책을 하며 휴식과 건강을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③ 피아미디어그룹

정윤아 / 채널A
보도본부

① 2015년부터 뉴시스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채널A에서 방송의 책임감과 협업의 가치를 익히며 겸손하게 성장하겠습니다.
② 건강한 다이어트를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유행이라는 f45를 두 번 했다가 목에 담이 온 데다, 주변에서 계속 두쫀쿠를 권하고 있습니다.
③ 뉴시스